

UN 경제위원회 2012년 중남미 경제 전망 발표

: 이시은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 2012년 10월 5일

■ UN ECLAC(경제위원회)는 2012년 중남미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발표함.

- 페루, 볼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는 5%대의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됨.
- 역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성장률이 각각 2.0%,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2011년 하반기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이래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 겨우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아르헨티나는 2012년 상반기 경기침체상황이 심각하였으며, 2012년 2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00%를 기록함.

1. 중남미 주요국의 GDP 성장률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9.2	8.9	2.0	3.5
볼리비아	4.1	5.2	5.0	4.5
브라질	7.5	2.7	1.6	4.0
칠레	6.1	6.0	5.0	4.8
콜롬비아	4.0	5.9	4.5	4.5
멕시코	5.6	3.9	4.0	4.0
페루	8.8	6.9	5.9	5.5
베네수엘라	-1.5	4.2	5.0	3.0
중남미 전체	6.0	4.3	3.2	4.0

: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2.

■ 세계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남미 국가들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해외 수요 감소와 수출품 가격하락 추세로 인해 경제위기의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의 경제 사정 악화로 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 중남미 국가들의 2012년 하반기 순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경제 사정 악화는 역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천연자원과 식료품)의 가격하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악화된 교역조건 탓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국가들의 노동시장 성장으로 내부 수요가 진작될 전망이며, 몇몇 국가의 경우 해외송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일자리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 소득수준 역시 향상되었음.

- 2012년 중남미 지역 전체의 평균 실업률은 6.5%로 전년대비 0.2%p 하락할 것으로 보임.

1. 남미 지역 GDP 변화율과 총수요 구성요소별 기여율



■ **2013년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지역 경제성장률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나 중미국가들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 대(對) 중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남미국가들의 경우 2013년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